

“미래가 더 살기 좋은 해남” 지속가능 군정 추진 ‘본격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정책 심의·자문 역할 기본전략 62개 세부 목표·152개 정책과제 구성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해남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힘찬 첫 발을 내디뎠다. 12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첫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205(안)'에 대한 설명 및 심의·의결과 군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발전목표(H-SDGs) 달성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주요 지표들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해남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속가

능발전 목표의 수립·이행을 추진하게 되며, 2022년 1월 제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2022년 12월에 제정된 '해남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에 근거해 구성됐다. 이들은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변경 ▲추진계획 이행상황 점검 ▲군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 제언 등 군정 전반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당연직인 명현관 해남군수를 포함해 군의원, 대학교수, 기업체 대표, 시민단체 활동가 등 총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다. 해남군은 올해 초 기본전략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 테스크포스팀(TFT)을 구



해남군이 지난 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첫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해남군 제공)

성, 지속가능발전의 취지에 맞춰 현재 세 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도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왔다. 이번엔 수립된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은 2025년부터 2045년까지 20년간 해남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청사진으로, '사람과 자연이 어울려 미래가 더 살기 좋은 해남'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이 전략은 경제, 사회, 환경, 협치 분야에서 총 17개의 해남군 지속가능발전 목표(H-SDGs), 62개 세부목표 및 지속가능발전지표, 그리고 152개의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해남군은 연말까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5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2년마다 지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해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명현관 군수는 "해남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기본전략 수립은 해남군의 특성을 반영하고, 군민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해남=박필용기자

“강진의 맛, 간편하게 즐겨보세요”

짬뽕어탕 등 지역특화 음식 밀키트 4종 신제품 출시

강진군은 12일 “지역특화 음식 밀키트를 통해 다양한 강진의 맛을 전국 사람들에게 알리고 밀키트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강진 대표음식 밀키트를 추가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출시되는 밀키트는 ▲짬뽕어탕(2종) ▲추어탕 ▲장어볶음 등 총 4종이다. (사진)

강진짬뽕어탕은 강진읍에 있는 정희네 밥상에서 강진짬뽕어탕 해풍에 잘 말린 시래기와 각종 양념을 넣어 정성껏 끓인 제품으로 깊고 진한 맛이 일품이며, 용량은 1-2인분(500g), 가격은 1만원에 판매된다.

강진만비단짬뽕어탕은 성전면에 있는 발효담다에서 강진만에서 잡히는 비단짬뽕어탕에 잘 말린 시래기와 집된장, 각종 양념을 넣어 정성껏 만든 제품으로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이며, 용량은 1-2인분(500g), 가격은 1만원이다.

강진추어탕은 강진읍 정희네 밥상에서 신선한 미꾸라지를 해풍에 말린 시래기와 각종 양념을 넣어 맛이 깊고 진한 제품으로 용량은 1-2인분(500g), 가격은 9천원이다.

강진만장어볶음은 남도음식거리인 마량 미향횃집거리에 위치한 공전횃집에서 싱싱한 봉장어에 야채, 매콤달콤한 수제양념을 넣어 풍성한 영양과 담백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제품으로 용량은 2-3인분(700g), 가격은 4만원이다.

모든 밀키트는 신선한 국내산 재료만을 사용해 만들었으며, 간편한 조리 설명서가 함께 제공되고 초록민음강진(https://greengin.com/)을 통해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밀키트 추가 출시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강진의 맛을 알리고 강진 특화 음식의 인지도를 높여 음식업소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밀키트를 꾸준히 개발해 강진의 매력을 전국에 알리고 ‘맛의 도시 강진’ 이미지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지난해 9월부터 강진 10대 음식 중 2종을 밀키트화에 판매하고 있으며, 밀키트를 취급하고 있는 곳은 작전면 황금들 식육식당에서 회춘탕, 병영면 수인관에서 돼지불고기를 취급하고 있다. /강진=정영록기자

박홍률 목포시장 “추석 명절 의료공백 최소화”

비상응급진료체계 현장 점검

박홍률 목포시장이 다가오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주요 응급시설을 방문 점검했다.

12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박홍률 시장은 목포한국병원과 목포시 의료원을 방문, 연휴 기간 비상응급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진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정부가 추석 ‘의료대란’을 우려하며 지난 11일부터 2주간 비상응급기간에 돌입한 가운데 목포시도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중증·응급환자를 중심으로 ‘의료 공백’이 없도록 총력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홍률 시장은 “응급의료 및 비상진료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료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겠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응급의료체계 유지가 가능하도록 현장을 지키는 의료인들 덕



박홍률 목포시장이 지난 11일 목포한국병원과 목포시의료원 응급실을 방문해 의료진들에게 비상응급의료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분에 서남권 주민들이 마음 놓고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다”고 의료진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목포시는 추석 연휴 동안 권역응급의료센터인 목포한국병원과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목포중앙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목포시의료원, 목포기독병원, 세안종합병원이 24시간 응급실

을 운영해 시민들의 응급진료 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한다.

한편 연휴 기간 동안 문을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정보는 시·보건소 홈페이지, 응급의료포털(E-gen), 목포시보건소(061-270-4000), 129(보건복지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목포=정해선기자

한빛원전 수명연장,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영광주민 “안전성 최우선” 의견 전달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12일 “지난 11일 영광군 더스타 호텔에서 한빛1, 2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날 개최된 영광군민 대상 공청회는 영광군민 등 323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 취지 설명, 한빛1, 2호기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 주민공청 주요 의견 설명, 주민 의견 진술에 대한 답변순으로 진행됐다.

참석한 영광군 주민들은 한빛1, 2호기 계속운전이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추진,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의견과 함께 향후 계속운전 진행과



지역소통계획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최원규 한빛원자력본부장은 “이번 공청회가 한빛1, 2호기 계속운전으로 인한 방사선 환경 영향의 안전성에 대해 주민들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향후 지속적인 소통과 홍보를 통해 한빛1, 2호기 계속

운전이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한수원은 공청회를 통해 수립한 의견과 앞서 주민공청에서 접수된 내용을 반영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 심사 받을 예정이다. /영광=김동규기자

나주시, 추석맞이 안전관리 강화 캠페인 전개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전기·소방 등 합동 안전점검

나주시는 “최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및 안전캠페인 등 안전관리 강화 활동을 펼쳤다”고 12일 밝혔다. (사진)

이번 점검은 추석 연휴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 터미널, 대형상가 등 다중이용시설 20개소를 대상으로 전기, 소방, 가스, 시설물 분야에 대해 민관 합동 점검을 진행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방시설 작동 상태 확인 ▲피난·방화시설 주변 물건 적치 여부 ▲누전차단기 작동 및 가스



사고 위험요인 점검 등 시설물 전반에 걸쳐 이뤄졌다. 점검에서 발견된 결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현장 시정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추석 이전까지 위험요소를 해소할 방침이다.

또한 나주시는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화재예방, 시민안전보험 홍보 등 안전의

식 고취를 위한 캠페인도 함께 실시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시민들이 추석 연휴를 가족과 함께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이용 시설물 안전점검과 함께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완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종환기자

완도군, 추석 명절 종합 대책 추진

교통·물가·진료 등 10개 분야

완도군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군민과 귀성객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명절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종합 대책의 주요 내용은 ▲교통 소통 ▲물가 안정 ▲재해·재난 ▲비상 진

료 및 보건 ▲연료 및 수도 공급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 등 10개 분야다.

추석 연휴 기간 중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각종 사건·사고 예방과 유사시 신속한 대응 태세를 유지해 군민과 귀성객의 불편 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연휴기간진료가 가능하도록 완도대성병원, 금일마취통증의학과의원, 노화보건

지소에 24시간 응급실이 운영되며, 17개의 병·의원과 20개의 약국을 지정해 의료 불편을 최소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교통 대책으로는 연휴 전 시설물 안전 관리와 운송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특별 교통 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불편사항 등을 접수·처리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군민과 귀성객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연휴 종합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기자

무안군,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497억 확보

유수지 신설, 홍수 예보시스템 구축

무안군은 12일 “행안부 주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공모사업에 선정, 지방비 289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49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지역은 무안읍 성내리, 성동리, 성남리 일원이다.

이 지역은 2009년 7월, 2020년 8월, 지난해 7월에 집중호우로 침수 등의 피해를 겪어 태풍이나 폭우 시 주민들은 침수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이 시달렸다.

이에 무안군은 반복적인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했다.

지역·중앙 전문가의 현장 점검 후 지난 4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심사를 거쳐 이달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었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상기후로 인한 폭우 등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으로 발생하는 반복적인 침수 문제와 관련한 군민들의 걱정과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재해 위험지역을 추가 발굴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상호기자